

#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 배경과 의미

이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교수

## 주요내용

- ▶ (현황) 지난 3월 성사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간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와 운송 인프라 관련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함.
- ▶ (원인과 분석) 우-투 간 관계 개선의 배경에는 미르지요예프 정부의 '좋은 이웃(good neighborliness)' 외교 정책이 자리함. 중앙아시아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그간 역내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나고 자국의 위상을 고취하고자 함.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 개시는 미르지요예프 정부가 표방하는 신 외교정책의 상징적 시작임.
- ▶ (전망과 시사점)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막강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중립국 투르크메니스탄의 협력으로 향후 중앙아시아 국제 환경에는 새로운 변화가 예상됨. 특히, 우즈베키스탄 신임 정부 주도 아래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관계 개선은 중앙아시아 에너지, 운송 네트워크 복원의 시작일 수 있음. 이는 미래 중앙아시아의 경제 잠재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1. 이슈 현황

▶ 지난 3월 성사된 우-투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와 운송 인프라 관련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함.

□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지난 3월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하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관계를 체결함.

-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서명하면서 다음의 분야에서의 협력에 상호 합의함.
  -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이하 양국) 국제무대에서 서로를 지원하며, UN, 이슬람협력기구, 아랄해(Aral Sea)를 위한 국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ral Sea) 및 기타 국제기구의 틀 내에서 일관된 협력을 지향함.
  - 양국은 이웃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의 안정 확립을 위해 테러, 마약 밀매 및 조직범죄 소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함.
  - 양국은 교역, 경제, 석유 화학, 교통 통신, 농업, 문화, 관광 및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모색

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양국 간 무역, 경제 관계를 다변화하고, 수출입품목을 보다 다양화하기로 함.

- 양국은 에너지, 운송 네트워크 구축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전력 수출에도 합의함.
- 카스피 해 횡단 물류수송 루트(코카서스 남부 지방을 거쳐 유럽으로 연결) 개발에도 양국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함.<sup>1)</sup>
- 5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을 재방문한 자리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TAPI 가스관 프로젝트에 우즈베키스탄 측의 참여를 제안함.
- 이 밖에도 다음의 내용에 합의함.
  - 투르크메니스탄 측 카스피 해 유가스전 공동 개발; 투르크메니스탄 産 전력 역내 다른 국가로 송전; 2018-2020년 양국 무역-경제 교류 활성화; 교통-운송 능력 강화 등.<sup>2)</sup>

표 1. 2017년 3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좌)과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우)의 만남



□ 투르크메니스탄은 우즈베키스탄에 TAPI 가스관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함.

- TAPI 가스관 프로젝트는 투르크메니스탄의 對 남아시아 가스 수출로임.
-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인 자원 부국이나 천연가스 수출로가 다각화되지 않은 까닭에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자국의 가스를 판매해 옴.
- TAPI는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를 잇는 약 1,814km 길이의 수송관 건설 프로젝트(100억 달러 규모)로, 완공 시 투르크메니스탄은 상기한 3개국에 연간 330억m<sup>3</sup>의 천연가스를 운송·수출하게 됨.

1)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교통과 에너지협정에 합의, 뉴시스, 2017-03-07,

2) Turkmenistan-Uzbekistan: Strategic Partnership in Action, News Central Asia, 2017-05-22,

- 그동안 TAPI 가스관 프로젝트는 인도-파키스탄 갈등으로 진행에 난항을 거듭해 왔는데 최근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관측임.
- 우선,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지난해 말 10억 달러(약 1조 1,428억 원)의 차관을 TAPI 프로젝트에 지원한 데 이어 가스관이 시작되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올해 초 독일 기업과 기본설계 계약을 체결함.
  - 파키스탄도 지난 3월 기본설계를 위한 경로 조사 작업에 착수함.
  -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인도-파키스탄 4개국이 올해 두바이에서 회동해 자금문제와 이제까지의 진행 상황을 논의하면서 지진 했던 TAPI 프로젝트는 활기를 되찾고 있음.

표 2. TAPI 가스 수송관이 지나는 루트



-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운송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가 눈에 띈.
- 올해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TAPI 프로젝트와 직간접 관련국인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 개선 및 강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TAPI 가스관이 지나가는 나라는 아니지만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양국과 접경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가스공사인 우즈베크네프테가즈(uzbekneftegaz)는 과거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국(TUKC)' 노선의 3개 공사에 모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음.<sup>3)</sup>
  - 이에 5월에 투르크메니스탄을 재방문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측으로부터 TAPI 프로젝트의 이행과 관련해 협력해 달라는 요청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I think we will definitely participate)”이라며 제안을 수락함.

3) 중앙-남아시아 관통 TAPI 가스관 프로젝트 재시동…우즈베크, 적극적으로 나서, Asia Today, 2017-06-28,

- 이 밖에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올해 1월,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 역내 에너지·인프라·운송 프로젝트에 우즈베키스탄의 참여 의지를 피력했음.
- 곧이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우즈베키스탄 무역관을 개소하면서 기존의 안보협력을 비롯하여 무역, 문화 교류로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있음.

## 2. 원인과 분석

▶ 우-투 간 관계 개선의 배경에는 미르지요예프 정부의 ‘좋은 이웃(good neighborliness)’ 외교정책이 자리함. 중앙아시아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그간 역내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나고 자국의 위상을 고취하고자 함.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 개시는 미르지요예프 정부가 표방하는 신외교정책의 상징적 시작임.

□ 2017년 3월 우-투 정상회담 성사: 우즈베키스탄 신임 정부의 ‘좋은 이웃’ 외교정책의 개시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과거 카리모프 정부에서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대외정책 행보를 선보이고 있음. 핵심은 과거 소원했던 중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임.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향후 우즈베키스탄은 모든 국가들, 특히 중앙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에 앞장설 것이라 피력함.
- 취임 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국경, 민족, 수자원 등 문제로 인해 골고려웠거나 냉각 상태에 있었던 중앙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외교정책이라는 평임.
- 투르크메니스탄과는 전력 수출 합의를 맺었고, 타지키스탄과 항공노선을 재개하면서 협력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 또한 다른 주변국들과 유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함.

□ 우즈베키스탄의 TAPI 가스관 프로젝트 참여는 상징적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프로젝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프로젝트의 실효성과 명분을 강화해 줄 것으로 예상됨.
- 나아가 본 프로젝트가 중앙아시아 역내 지지를 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입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자국의 가스를 수입하게 될 소비국들과 협상을 주도할 수 있음.

□ 에너지 및 운송 분야 협력은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공통의 관심사임.

- 우즈베키스탄은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이중 내륙국가임. 이로 인해 새로운 시장 개척과 교통 인프라 확보는 우즈베키스탄에게 오랫동안 중대한 국가 과제였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2015년 러시아와의 가스 수출 문제에서 비롯한 갈등과 유가 하락으로 경기 침

체로 새로운 투자처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름. 중립국 노선을 표방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은둔국이었던 투르크메니스탄은 정치, 경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할 수 있는 역내 이웃 국가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태임.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좋은 이웃’ 정책으로 시작된 우-투 간 관계 개선은 양국에게 새로운 협력 파트너 확보와 신흥 시장 개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3. 전망과 시사점

▶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막강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중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협력으로 향후 중앙아시아 국제 환경에는 새로운 변화가 예상됨. 특히, 우즈베키스탄 신임정부 주도 아래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관계 개선은 중앙아시아 에너지, 운송 네트워크 복원의 시작일 수 있음. 이는 미래 중앙아시아의 경제 잠재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관계는 미르지요예프 신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함.

- 이는 미르지요예프 정부의 이른바 ‘좋은 이웃’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됨.
-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운송 인프라 부문에서의 적극적인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TAPI 가스관 프로젝트 참여 의향이나 전력 시스템 공유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에트 붕괴로 단절됐던 중앙아시아의 유기적 에너지 공유시스템 복구로 발전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함.

□ 우즈베키스탄의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국제 환경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역내 국가 간 정치, 경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은 그간 국경, 민족, 공유자원(특히, 수자원) 사용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화해 무드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빈곤, 환경오염, 테러리즘, 극단주의 등의 문제에 공동의 다자적 해결책 모색 역시 가능함.
- 이는 미래 중앙아시아의 경제 잠재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EMERiCs**

## 참고문헌

-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교통과 에너지협정에 합의, 뉴시스, 2017-03-0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07\\_0014747250&cID=10105&pID=101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07_0014747250&cID=10105&pID=10100) (검색일 2017-07-02).
- Turkmenistan-Uzbekistan: Strategic Partnership in Action, News Central Asia, 2017-05-22,  
<http://www.newscentralasia.net/2017/05/22/turkmenistan-uzbekistan-strategic-partnership-in-action/> (검색일 2017-07-05).
- 중앙-남아시아 관통 TAPI 가스관 프로젝트 재시동...우즈벡, 적극적으로 나서, Asia Today, 2017-06-28,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628010014600> (검색일 2017-07-04).

## 알립니다

-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